

이천시 양봉농가 위해 설봉산에서 밀원수 식목행사



시민들과 함께 밀원수를 심고 있는 이천시장 조병돈 (좌)과 한국양봉협회 회장 전기현(우)

지난 4월 1일, 경기도 이천시 설봉산에서 환경 보호수(이하 밀원수) 식목행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양봉협회 전기현 회장, 양봉농업협동조합 조상균 조합장,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김동수 지부장과 이천시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식목행사에서는 아까시꿀 흉작에 따른 양봉농가의 오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밀원수 심기 운동을 홍보 하는 한편, 기능성 밀원수인 헛개나무 3,000주를 심었다.

이번 행사에서 이천시 양봉연구회 백승덕 회장은 양봉농가의 아까시꿀 흉작시기와 맞물려 밀

원수 심기 운동을 약속한 이천 시민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꿀차 시식회를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밀원수 심기 운동에 대한 의지로 헛개나무 2,500주를 추가하여 이번 식목주간에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오백영 경영축산팀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천시의 고품질 아까시꿀이 아까시나무의 벌목과 황화현상으로 인한 고사, 이상기후 등으로 말미암아 흉작으로 이어져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수원처럼 집약적인 밀원지를 조성하여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에 식재한 헛개나무는 꿀 분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약리효능까지 겸하고 있어 밀원수심기 운동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양봉농가와 이천 시민들 사이에서 상생의 피드백효과까지 기대 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꿀차 시식회에서 꿀차를 맛보고 있는 이천 시민들